

북한의 불교 고문헌과 그 특성

A Study on the Premodern Buddhist Documents in North Korea

이 종 수 (Lee, Jong-Su)*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북한 불교 고문헌의 특성 |
| 2. 북한 소재 사찰 간행 불서 | 5. 맺음말 |
| 3. 북한 소재 사찰 불서 소장 목록 | <참고문헌> |
| 3.1 일제강점기 사찰 소장 목록 | |
| 3.2 김일성종합대학 소장 불서 목록 | |

< 초 록 >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불교 고문헌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북한 내에 어떤 불교 고문헌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필자는 근래에 동국대 도서관에서 194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총 26책)과 1958년에 작성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을 발견하였다. 일제강점기 24개 本末寺의 사찰재산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가운데 8개 本末寺가 현재 북한지역에 속한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 목록 가운데 불교 고문헌을 정리하고, 또 한국전쟁 이후에 작성된 김일성종합대학의 불교 고문헌 목록을 정리하여 북한의 불교 고문헌과 그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북한 소재 8개 本寺는 유점사, 쾌엽사, 성불사, 영명사, 범홍사, 보현사, 석왕사, 귀주사이다. 이 사찰들과 그 末寺의 소장 불교 고문헌은 佛書類, 木板類, 寺誌類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불서류는 현재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목판류와 사지류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북한 방문을 통한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조선시대 국왕의 어필을 비롯하여 조정에서 발급한 완문,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사적기 등의 사지류는 문화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불교 고문헌을 정리해 됨으로써 국제정치적 여건에 따라 갑자기 찾아올 지도 모를 북한 소장 불교 고문헌 연구를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남북한의 우호적인 관계가 증진되어 순수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불교 고문헌을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본고가 북한의 불교 고문헌 연구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要語: 북한불교, 북한사찰,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도서목록』, 유점사, 쾌엽사, 성불사, 영명사, 범홍사, 보현사, 석왕사, 귀주사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su5589@hanmail.net)

접수일: 2014년 5월 29일 최조심사일: 2014년 6월 18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Since the Korean War, the information network of the premodern Buddhist documents in North Korea has been completely blocked, and therefore, nobody knew what kind of documents were kept in the country. But the present author recently discovered *the List of Valuable Property of the Buddhist Temples in Joseon Korea* (26 books in total, published in 1940 or thereabouts) and *the Library Catalog of the Library of Kim Il-sung University* (published in 1958) from the Central Library of Dongkuk University. *The List of Valuable Property of the Buddhist Temples in Joseon Korea* contains an inventory of property of 24 temple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8 temples among them were located in today's North Korean territory. This study sorts out the premodern Buddhist documents from the list and analyzes the list of relevant documents of Kim Il-sung University to elucidate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those documents have.

The 8 temples in North Korean territory are temples of Yujeom, Payeop, Seongbul, Yeongmyeong, Beopheung, Bohyeon, Seokwang, and Gwiju. The documents kept in these temples and other temples annexed to them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uddhist writings, wooden blocks, and temple histories. Most of the Buddhist writings in the list are the ones that are available in South Korea, but since the wooden blocks and temple histories are the only copies in existence, there are needs for a spot investigation in North Korea. Especially the royal writings by Kings of Joseon Korea, governmental documents, and temple history books have an important cultural significance.

By securing the list of North Korean premodern Buddhist documents, this study also aims to construct a firm base of researches on the said documents, in case it became available to conduct such studies whe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geography shifts. One day, two Koreas will have a better relationship and it would enable academic relations between them as well. Researchers from two Koreas will conduct a joint research on the premodern Buddhist documents in North Korea, and then this study could be a little help for them.

Key words: North Korean Buddhism, Buddhist temple in North Korea, *the List of Valuable Property of the Buddhist Temples in Joseon Korea*, *the Library Catalog of the Library of Kim Il-sung University*, Yujeom Temple, Payeop Temple, Seongbul Temple, Yeongmyeong Temple, Beopheung Temple, Bohyeon Temple, Seokwang Temple, and Gwiju Temple

1. 머리말

한국전쟁 이후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세계 각국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 이유로 북한에 있는 문화재 현황도 부분적 자료에 의거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불교문헌이라고 하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보면 그 정보 획득 방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문화재 역시 우리 민족의 문화재이므로 그 목록을 파악하고 공동보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¹⁾

북한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98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민간 차원에서도 각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성과로써 개성 영통사, 금강산 신계사 등을 발굴 복원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2008년 정권 교체와 금강산 총기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민간 교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 특히 불교문화재는 북한의 전체 문화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한 불교계의 대비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 가운데 건축물이나 공예품은 그 대체적인 목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협력하여 보존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불교문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려된 바 없다. 불교문헌이 북한에 얼마나 있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전혀 무지한 실정이다. 불교문헌은 불교계 문화재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어 있는 정신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1) 북한불교와 관련한 연구서 및 논문으로는 사찰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北韓寺刹研究』(서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993), 법타스님의 『북한불교연구』(서울: 민족사, 2000), 황인규의 “북한지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의,” 『대각사상』 17(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2) 등이 있다.

2) 김상현, “영통사 발굴 및 복원의 역사적 의의,” 『천태학연구』 9(서울: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편, 『금강산 신계사 복원발사 백서』(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9).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194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³⁾과 1958년에 작성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에 있는 북한의 불교 고문헌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북한 소재 사찰의 수적추이를 살펴보고,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검색을 통해 조선시대까지 북한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목록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가운데 북한지역 8개 본사(유점사, 패엽사, 성불사, 영명사, 범홍사, 보현사, 석왕사, 귀주사)의 불교문헌 목록을 정리하여 소개할 것이다. 습자지에 불펜으로 기록한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총 24개 본사⁴⁾와 그 말사 소장의 귀중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의 중요성은 일찍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DB화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선 본고의 주제를 감안하여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사찰의 불교문헌 목록을 정리하고 그 자료의 종류를 분류함으로써 언젠가는 시행될 북한 지역 사찰 소재 불교문헌 조사에 대비하고자 한다.

2. 북한 소재 사찰 간행 불서

북한 소재 사찰 간행 불서 목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고문헌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색은 동국대도서관을 비롯하여 서울대규장각, 고려대도서관, 전남대도서관 등의 고서목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서를 검색할

3) 일제강점기 24개 本末寺의 재산목록을 수록한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총 26책이 동국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4)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의 24개 본사는 다음과 같다. 麻谷寺, 海印寺, 松廣寺, 法住寺, 仙岩寺, 鶴林寺, 銀海寺, 孤雲寺, 金龍寺, 通度寺, 梵魚寺, 貝葉寺, 奉恩寺, 傳燈寺, 歸州寺, 奉先寺, 乾鳳寺, 釋王寺, 月精寺, 楡岾寺, 普賢寺, 法興寺, 永明寺, 成佛寺.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또 개인 소장 자료는 검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검색과 더불어 기존의 연구⁵⁾를 참고하여 북한 지역 사찰의 판본을 정리하였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검색에서는 발행지와 발행자 등을 검색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는 발행자에 북한 지역 사찰명을 기입하여 서명과 발행년 등을 정리한 것이다. 1940년대 북한지역 8개의 본사⁶⁾와 말사, 그리고 소속이 불분명한 사찰을 표로 나타내었다.

<표 1> 본사 및 말사 불서 목록

사찰명	서명(찬자, 발행년)
①	유점사 蒙山和尚法語略錄(德異 著; 信眉 譯解, 1521), 禪門拈頌集(慧謨 編, 1549), 禪源諸詮集都序(宗密 述, 1553), 禪家龜鑑(休靜 撰, 1590), 妙法蓮華經(1762), 大藏一覽集(陳賈 編, 1824), 造像經(提雲般若 譯; 聳虛 改編, 1824),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義淨 譯, 1869)
	신계사 金剛般若波羅蜜經(鳩摩羅什 譯; 慧能 口訣, 1867)
	장안사 妙法蓮華經要解(鳩摩羅什 譯; 戒環 解, 1575)
	표훈사 縮門警訓(性聰 註, 1532), 高峰和尚禪要(持正 錄; 洪喬祖 編, 1536), 縮門警訓(性聰 註, 1539), 禪林寶訓(淨善 重集, 1542), 妙法蓮華經要解(鳩摩羅什 譯; 戒環 解, 1545), 高峰和尚禪要(持正 錄; 洪喬祖 編, 166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知訥 著, 1662), 雲水壇歌詞(慶熙 編, 1662), 妙法蓮華經要解(鳩摩羅什 譯; 戒環 解, 1663)
②	패엽사 金剛般若波羅蜜經(鳩摩羅什 譯; 慧能; 治父川老; 傅大士; 如如居士 解, 1564), 大報父母恩重經(1564), 妙法蓮華經要解(鳩摩羅什 譯; 戒環 解, 1564)
	수증사 狗子無佛性話揀病論(眞覺 著, 1616), 大乘起信論疏(1616), 大慧普覺禪師書(宗杲 著; 慧然 錄; 黃文昌 重編, 1616), 圓頓成佛論(知訥 著, 1616)
	신광사 現行西方經(元昂 編, 1556), 法集別行錄節要私記(知訥 著, 1570), 妙法蓮華經(1697),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諺解(幸悟 等編, 1697),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32)
	월정사 誠初心學人文(知訥 著, 1574), 大慧普覺禪師書(宗杲 著; 慧然 錄; 黃文昌 重編, 1575), 大慧普覺禪師書(慧然 錄, 1636), 大慧普覺禪師書(宗杲 著; 慧然 錄; 黃文昌 重編, 1642), 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希運 述; 喪休 集, 1645), 天台四教儀略抄(1654)

5) 박상국,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78-89.; 김성수 외 4명, 『조선 전기 기록문화 연구』(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3), 210-213.;禹秦雄, “조선시대 묘향산 보현사 간행 판본고,” 『서지학연구』 51(대구: 서지학회, 2012), 165-203.

6) <표 1>에서 8개 본사는 다음과 같다. ① 유점사, ② 패엽사, ③ 성불사, ④ 영명사, ⑤ 범홍사, ⑥ 보현사, ⑦ 석왕사, ⑧ 귀주사.

사찰명	서 명(찬자, 발행년)
③	귀진사 大報父母恩重經(1546), 蓮經別讚(金時習 撰, 1546), 妙法蓮華經要解(鳩摩羅什 譯: 戒環 解, 1554), 金剛般若波羅蜜經(1557), 大方廣佛華嚴經疏(澄觀 撰述: 淨源 錄疏注, 1557), 龍龕手鑑(1563), 大方廣佛華嚴經疏(澄觀 述, 1564), 誠初心學人文(知訥 述, 1572)
	심원사 金剛般若波羅蜜經(1525), 蒙山和尙法語略錄(附)普濟尊者法語(蒙山 著: 信眉 譯, 1525), 碧巖錄(1526), 證道歌(女覺 著, 1526), 五大真言(1535), 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佛陀波利 奉詔譯, 1536),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1553), 高峰和尙禪要(原妙 說: 持正 錄: 洪喬祖 編, 1525)
④	광법사 大報父母恩重經(1454)
	심곡사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1), 妙法蓮華經弘傳序(戒環 解, 1678)
⑤	범흥사 景德傳燈錄(道原 纂, 1568), 禪門拈頌集(慧謙 編, 1568), 景德傳燈錄(道原 纂, 1573)
	안국사 蒙山和尙六道普說(蒙山 著, 1566),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大愚 集述, 1566)
	영친사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大愚 集述, 1566), 大慧普覺禪師書(宗杲 著: 慧然 錄: 黃文昌 重編, 1630)
	청룡사 振虛集(圓照 撰, 1786)
⑥	보현사 緇門警訓(如忞 著, 1549), 發心修行章(元曉 述, 1566), 碧松堂堊老行錄(休靜 著, 1569), 禪家龜鑑諺解(休靜 撰: 金華道人 譯, 1569), 大慧普覺禪師書(宗杲 著: 慧然 錄: 黃文昌 重編, 1573), 禪宗永嘉集(女覺 撰: 行靖 註: 淨源 修定科: 得通 說誼, 1573), 看話決疑論(知訥 著, 1578), 禪家龜鑑(休靜 著, 1612), 禪源諸詮集都序(宗密 述, 1612), 緇門警訓(如忞 著, 1638), 虛白集(明照 著: 南印 編, 1669), 金剛般若波羅蜜經(得通 說誼, 168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知訥 著, 1680), 禪源諸詮集都序(宗密 述, 1680),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大愚 集述, 1680),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佛陀多羅 譯: 宗密 述解, 1681), 妙法蓮華經(1681),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慧定 述, 1862), 景德傳燈錄(道原 纂, 1682), 首楞嚴經(般刺蜜帝 譯: 戒環 解, 1682), 大乘起信論疏(真諦 譯: 法藏 述: 宗密 錄, 1682), 緇門警訓(性聰 註, 1682),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菩薩戒本(鳩摩羅什 譯, 1683), 佛祖宗派之圖(道安 增補, 1688), 諸真言集(1688), 妙法蓮華經(1691), 雪巖雜著(秋鵬 著, 1710), 雪巖集(秋鵬 著, 1710), 刪補梵音集(1713), 月渚堂大師集(道安 著, 1717), 大悲心多羅尼(1728), 觀世音菩薩靈驗略抄, 1728), 隨求多羅尼(1729), 阿彌陀經(1729), 請文(1729), 高峰和尙禪要(高峰 著: 持正 錄: 洪喬祖 編, 1731), 天地八陽神呪經(義淨 奉詔譯, 1731), 禪家龜鑑(休靜 著, 1731), 虛靜集(法宗 著, 1732), 玉樞經(1733), 諸般文(1733), 佛說大目連經(法天 譯, 1735), 禪源諸詮集都序(宗密 述: 秋鵬 科評, 1740), 虛白集(明照 著: 南印 編, 1771), 清虛堂集(休靜 著, 1794),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미상)
내원암	曹洞五位(1416),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知訥 著, 1612), 禪家龜鑑(休靜 撰, 1612), 禪源諸詮集都序(宗密 著, 1612), 月渚堂大師集(道安 著, 1717)
백운사	般若波羅蜜多心經(素夫 解, 1568)
보운암	高峰和尙禪要(持正 錄: 洪喬祖 編, 1573)
불영대	金剛般若波羅蜜經(1684), 茶毘文(168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88), 真言集(1688)
심원사	蒙山法語(蒙山 撰: 信眉 譯訣, 1525),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仲希 述: 孝寧大君等諺解, 1553)

북한의 불교 고문헌과 그 특성

사찰명	서 명(찬자, 발행년)
⑥	용문사 念佛普勸文(明衍 集, 1765)
	은적사 三門直指(振虛捌關, 1769)
	축성전 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1887)
	화강암 梵綱經(1743), 梵綱經(1791)
	빙발암 蒙山和尚法語略錄(德異 著; 信眉 譯解, 1535)
	선정암 禪門拈頌說話(慧謙 編, 1685)
은선암 四分律七聚大目抄(1791)	
⑦	석왕사 蒙山和尚六道普說(蒙山 著, 1541), 法華靈驗傳(1544), 佛說大目連經(法天 譯, 1546), 佛說大目連經(法天 譯, 1546), 賢首諸乘法數(行深 編集, 1547), 禪宗永嘉集(玄覺 撰; 行靖 註; 淨源 修定科; 得通 說誼, 1552), 勸供諸般文(1574), 西方無異路(1574), 高峰和尚禪要(持正 錄; 洪喬祖 編, 1632), 妙法蓮華經要解(鳩摩羅什 譯; 戒環 解, 1632), 誠初心學人文(知訥 述, 1633),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知訥 著, 1633),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己和 編, 1634),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己和 等解, 1634), 禪門五宗綱要(喚惺 編, 1689),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解(知訥 著, 1747), 禪源集都序科記(定慧 撰述; 海源 證正; 讓敬 通攷; 總覽 編錄, 1747), 禪門五宗綱要(喚惺 編, 1749), 大乘百法明門論(天親 著; 玄奘 譯; 德清 述, 1750), 天鏡集(海源 著; 翠雲 聖岸 共編, 1751), 喚惺詩集(志安 著; 聖訥 編錄, 1751),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宗密 述疏; 子塔 錄記; 行策 會編, 1752), 阿彌陀經要解(鳩摩羅什 譯; 智旭 解, 1753), 雪峯山釋王寺記(宏演 撰, 1761), 雪峯山釋王寺記(休靜 等撰, 1806), 天鏡集(海源 著; 聖岸 編錄; 等麟 校正; 瀛齋 管刻, 1821)
	견성암 地藏菩薩本願經諺解(1762)
	내원암 櫟山集(善影 撰, 1888)
	도성암 禪宗永嘉集(玄覺, 1552)
⑧	개심사 大乘起信論疏(法藏 述; 宗密 錄, 1657), 大乘起信論疏(法藏 述; 宗密 錄, 1657), 妙法蓮華經弘傳序(165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竹庵 編, 1658)
	건불암 月波集(兌律 著, 1773)

<표 2> 기타 사찰 불서 목록

지역	사찰명	서 명(찬자, 발행년)
평안도	천명사	預修十王生七經(藏川 述, 1454)
평안남도	석수암	佛說四十二章經(1568)
	송방사	西方無異路(1564)
평안북도	해탈사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1561),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知訥 著, 1570), 禪源諸詮集都序(宗密 述, 1574), 阿彌陀經(1561)
	고묘불당	蓮宗寶鑑(普度 編輯, 1685)
평안북도	반야암	圓頓成佛論(知訥 著, 1578)
	의상암	金剛般若波羅蜜經三家解(己和 說誼; 學祖 重校, 1584)
	조원암	大報父母恩重經(1689)

지역	사찰명	서 명(찬자, 발행년)
함경남도	개단사	雲水壇歌詞(慶熙 編, 1659)
	영덕사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9)
	조계사 원통암	妙法蓮華經(1723)
	진정사	大報父母恩重經(1731), 妙法蓮華經(1731)
황해도	구중사	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불봉암	天地冥陽水陸齋儀(竹庵 撰, 1586)
	불회암	蒙山和尚六道普說(蒙山 著, 1565)
	석두사	禮念彌陀道場懺法(王子成 集, 1542), 妙法蓮華經(1543), 顯正論(得通 著, 1544), 大報父母恩重經(1546), 大慧普覺禪師書(宗杲 著; 慧然 錄; 黃文昌 重編, 1546), 首楞嚴經(1547), 觀無量壽佛經(1558), 地藏菩薩本願經(法燈, 1558), 蒙山和尚六道普說(蒙山 著, 1565)
	성속사	十地經論(1557), 首楞嚴經(戒環 解, 1559)
	연봉사	妙法蓮華經(1559)
	월출암	阿彌陀經(1866), 아미타삼야삼불살루불단과도인도경(1866)
	이순변	妙法蓮華經(1564)
	자비령사	首楞嚴經(戒環 解, 1489), 地藏菩薩本願經(法燈, 1489), 蒙山和尚六道普說(蒙山 著, 1490), 六經合部(미상)
	장불사	妙法蓮華經(鳩摩羅什 奉詔譯; 戒環 解; 省거 書, 1420)
	중암	地藏菩薩本願經(法燈, 1562), 妙法蓮華經(1564), 賢首諸乘法數(行深 編集, 1566)
	천불사	禪宗永嘉集(玄覺, 1575), 金剛般若波羅蜜經(1576)
	청암사	六祖大師法寶壇經(1558)
	학림사	四溟根源錄(1768)
홍률사	預修十王生七經(藏川 述, 1574), 妙法蓮華經(1656), 念佛普勸文(明衍 集, 1765)	

3. 북한 소재 사찰 불서 소장 목록

3.1 일제강점기 사찰 소장 목록

1940년경에 편찬된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당시 총 24개 본사와 그 말사의 귀중재산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습자지에 필사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도 있지만 당시 불교계의 재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 불서 및 목판 상황도 정리하고 있어서 당시

의 불교문헌 소장 사항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북한지역 8개 본사의 불교문헌 현황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유점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7)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유점사	㉠ 경율논: 화엄경(5부), 법화경(5부), 열반경(2부), 원각경(3부), 사분율(1부), 기신론(4부) ㉡ 중국찬술: 불조통재(1부), 회현기(2부), 금강경간정기(3부), 대명법수(1부) ㉢ 한국찬술: 염송(2부) ㉣ 사지류: 成宗御筆(2), 完文(6), 帖文(1), 立案(5), 事蹟(1)
신계사	㉠ 경율논: 화엄경(6), 법화경(7), 원각경(1), 반야경(1), 능엄경(2), 부모은중경(1), 목련경(1), 기신론(1) ㉡ 중국찬술: 要集(2) ㉢ 한국찬술: 염송(1부) ㉣ 사지류: 完文(12), 節目(1)
장안사	㉠ 경율논: 화엄경(1질), 법화경(1질) ㉡ 사지류: 完文(21), 節目(5), 立案(1), 紅字上標文(1), 長安寺事蹟(1), 量案(7), 田畝案(3)
표훈사	㉠ 경율논: 원각경(2), 반야경(2), 능엄경(10), 십지론(40) ㉡ 중국찬술: 금강경간정기(10) ㉢ 한국찬술: 염송(30) ㉣ 사지류: 世祖御筆(1), 量案(2), 各樣文書(1)
심원사	㉠ 경율논: 화엄경(1부81), 법화경(1부7), 칠성경(2)
마하연	㉠ 경율논: 화엄경(66), 화엄경(50) ㉡ 한국찬술: 선문촬요(2)
정양사	㉠ 경율논: 대장경(6,447), 화엄경(81)
백화암	㉠ 경율논: 화엄경(81)
수태사	㉠ 경율논: 법화경(7), 정토삼부(244권 3부), 법화경(1) ㉡ 기타: 칠조성교(3), 교행신증(3)

7) 유점사는 강원도 고성군 서면 백천교리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 明寂寺, 神溪寺, 長安寺, 長訓寺, 鳳逸寺, 淸平寺, 深源寺, 普光庵, 鉢淵庵, 文殊庵, 長安寺 地藏庵·長慶庵·安養庵·靈源庵·觀音庵·下觀音庵, 摩訶衍, 正陽寺, 白華庵, 佛地庵, 表訓寺 圓通庵, 頓道庵, 萬灰庵, 須彌庵, 船庵, 寶德庵, 表訓寺 神林庵·青蓮庵, 水泰寺, 千佛庵, 泉谷寺, 龍貢寺, 觀音寺, 隱跡寺, 華藏寺, 聖住庵, 石臺庵, 地藏庵, 南庵, 安養庵, 安養寺 福慧庵, 長淵寺, 菩薩寺, 甘露寺, 寶月庵, 靈珠庵, 上院庵, 觀應寺.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용공사	㉠ 경율논: 화엄경(143), 법화경(19), 원각경(11), 금강경(3), 능엄경(10), 사십이장경(1), 삼부경(1), 기신론(11) ㉡ 중국찬술: 도서(2) ㉢ 기타: 칠조성교(1), 교행신증(1)
관음사	㉠ 경율논: 화엄경(5), 법화경(7)
성주암	㉠ 경율논: 화엄경(54), 법화경(16), 원각경(7), 능엄경(2), 범왕경(1), 약사경(1), 지장경(2) ㉡ 사지류: 葛來事蹟(1) ㉢ 기타: 미타참문(2)
석대암	㉠ 경율논: 화엄경(40), 법화경(7)[지장경판(35매)]
안양암	㉠ 경율논: 법화경(2부)
안양사 복혜암	㉠ 경율논: 법화경(1부)
상원암	㉠ 경율논: 能音經(1), 蓮花經(1)
관음사	㉠ 경율논: 부모은중경(1), 약사여래본원경(1), 불설대목련경(1), 화엄경(3), 금강경(1), 연화경(1)

<표 4> 패엽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⁸⁾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패엽사	㉠ 경율논: 화엄경(3), 법화경(4), 원각경(2), 능엄경(1), 반야경(1), 법화경(1), 기신론(1)[연화경판(1)] ㉡ 중국찬술: 전등록(1) ㉢ 한국찬술: 염송(1)
지장전	㉠ 경율논: 법화경(1)
월정사	㉠ 경율논: 법화경(1)
달마암	㉠ 경율논: 법화경(1), 원각경(1)
봉림암	㉠ 경율논: 아미타경(1)
묘각사	㉠ 경율논: 법화경(1부), 아미타경(1부)
신광사	㉠ 경율논: 법화경(7), 화엄경(7), 지장경(1), 금강경(1), 법화경(7)[경판(160매)]

8) 패엽사는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 패엽리 구월산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地藏殿, 月精寺, 達摩庵, 鳳林庵(廢庵), 七星殿, 白蓮庵, 妙覺寺, 洛山庵, 慈惠寺, 神光寺, 北庵, 雲水庵, 安養庵, 正覺寺, 東阜寺, 青蓮寺, 雙溪庵, 壽增寺, 雲興寺(廢寺), 華藏寺(廢寺), 停穀寺, 鎮鳳庵, 圓井寺, 燃燈寺, 高井寺, 修道寺, 妙音寺, 懸庵.

북한의 불교 고문헌과 그 특성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북암	㉠ 경율논: 법화경(7)
운수암	㉠ 경율논: 법화경(7)
안양암	㉠ 경율논: 법화경(5), 원각경(7), 기신론(3)
정각사	㉠ 경율논: 법화경(3), 원각경(3)
동고사	㉠ 경율논: 화엄경(2)
청련사	㉠ 경율논: 법화경(3)
수증사	㉠ 경율논: 법화경(7)
진봉암	㉠ 경율논: 법화경(2)
화장사	㉠ 경율논: 법화경(1)
운흥사	㉠ 경율논: 화엄경(5)

<표 5> 성불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⁹⁾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성불사	㉠ 경율논: 화엄경(10), 법화경(7), 화엄경(81)
심원사	㉠ 경율논: 화엄경(40)
서사암	㉠ 경율논: 원각경(1), 능엄경(1)
귀진사	㉠ 경율논: 화엄경(10)[<u>대장경(1,500)</u>] ㉡ 중국찬술: 要集(1)
속명사	㉠ 경율논: 화엄경(1)
영천암	㉠ 경율논: 범망경(1), 법화경(1), 화엄경(1), 장수경(1), 기신론(4) ㉡ 한국찬술: 엄송(5)
함굴암	㉠ 경율논: 법화경(2)
강서사	㉠ 경율논: 화엄경(55), 법화경(7), 금강경(1), 원각경(3), 범망경(1), 미타경(1)
원명사	㉠ 경율논: 미타경(1)

9) 성불사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강성동 정방산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 圓通庵, 上院庵, 心源寺, 聖殿庵, 西捨庵, 書院庵, 地藏庵, 觀淨寺, 松林寺, 獨亭寺, 歸眞寺, 續命寺, 靈泉庵, 函窟庵, 加心寺, 高達寺, 觀寂寺, 館北寺, 北岫寺, 江西寺, 圓明寺.

<표 6> 영명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¹⁰⁾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영명사	㉠ 경율논: 법화경(1), 유마경(3), 아미타경(1)[<u>대장경(416)</u>] ㉡ 중국찬술: 임제록(1) ㉢ 한국찬술: 선가귀감(1), 불교통사(2), 불교약사(1), 연담집(2), 선요사기(1), 예수문(1) ㉣ 기타: 진언집(1)
광법사	㉠ 경율논: 화엄경(67)
법운암	㉠ 경율논: 아미타경(1), 대장경(1), 목련경(1) ㉣ 기타: 진언집(1)
영천암	㉠ 경율논: 화엄경(60)
보림사	㉠ 경율논: 화엄경(62), 법화경(24), 목련경·은중경합부(1) ㉢ 한국찬술: 삼문직지(1) ㉣ 기타: 진언집(1)
용산사	㉠ 경율논: 화엄경(19), 법화경(19)
길상사	㉣ 기타: [<u>다라니판(1)</u>]
회용사	㉠ 경율논: 법화경(7), 반야경(1), 화엄경(1)

<표 7> 법흥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¹¹⁾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법흥사	㉠ 경율논: 금강경(1), 지장경(2), 조상경(1) ㉡ 중국찬술: 요집(1) ㉢ 한국찬술: 선문증정록(1), 선문사변만어(1)[<u>엽송판(300매)</u>] ㉣ 사지류: 宣祖御筆(2), 事蹟冊(1), 寺刹史料(2)
학원암	㉠ 경율논: 미타경(1), 법화경(1)
운상암	㉠ 경율논: 지장경(1), 은중경(1) ㉡ 중국찬술: 치문(1)

10) 영명사는 평안남도 평양시 금수산 북벽루 서쪽 기린굴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 廣法寺, 法雲庵, 靈泉庵, 頭陀寺, 寶林寺, 玉泉寺, 深谷寺, 龍山寺, 吉祥寺, 湧泉寺, 神德寺(廢寺), 洄湧寺(廢寺).

11) 법흥사는 평안남도 평원군 공평면 신성리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 觀音寺, 靈竺庵, 七佛寺, 圓寂寺, 龍華寺, 靑龍寺, 靈泉寺, 臨濟庵, 雲祥庵, 隱寂庵, 三德庵, 五雲庵, 東金剛庵, 安國寺, 觀音寺, 北庵, 架山寺, 東林寺, 香楓寺, 通仙寺, 西林寺, 孔巖寺, 月窟庵, 雲興寺, 成龍寺, 鶴源庵, 白雲庵, 法蓮庵, 嶺臺寺(廢寺), 內院庵.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내원암	㉠ 경율논: 법화경(1) ㉡ 중국찬술: 요집(1)
영대사	㉠ 경율논: 화엄경(1) ㉡ 중국찬술: 요집(1)
성룡사	㉠ 경율논: 법화경(2)
동림사	㉠ 경율논: 법화경(4)
가산사	㉠ 경율논: 팔양경(1)
안국사	㉠ 경율논: 금강경(1), 화엄경(2), 삼부합경(2), 은중경(2), 무량수경(3), 관무량경(3) ㉡ 중국찬술: 도서(2), 몽산법어(1), 선원제전집(1) ㉢ 한국찬술: 범음집(1), 수록무차평등재의활요(1) ㉣ 기타: 衆會集(1), 法說祝經集(1)
동금강암	㉠ 경율논: 법화경(7), 은중경(1), 아미타경(1)

<표 8> 보현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¹²⁾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보현사	㉠ 경율논: [현담홍자권관(50매), 대장경판(4,023매), 대화엄경판(1,267매), 대문법화경판(30매), 疏법화경판(126매), 대문금강경판(13매), 疏금강경판(64매), 원각경판(166매), 능엄경판(125매), 대미타경판(56매), 소미타경·미타예문판(50매), 십육관경판(21매), 지장경판(36매), 목련경판(26매), 은중경판(41매), 법망경판(66매), 彌瀾경판(29매), 주심경판(11매), 관음경판(11매), 고왕경판(11매), 팔양경판(14매), 칠성경판(12매), 시왕경판(21매), 玉板경판, 持心경판, 大藏경판, 百殺경판, 解送경판, 安宅경판(79매), 度厄경판(79매), 竈王경판(79매), 會命경판(79매), 敗目경판(79매), 權世경판(79매), 기신론판(40매), 무간론판(18매), 疏판(29매)] ㉡ 중국찬술: [연중보감판(118), 助顯錄판(116), 전등록판(26매), 대혜서장판(77매), 치문경훈판(43매)] ㉢ 한국찬술: [心要牒판(13매), 三門直指판(39매), 三時繫念文판(19매), 往生文판

12) 보현사는 평안남도 영변군 북신현면 묘향산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 布教堂, 陽和寺, 龍門寺, 樓雪寺, 鶴歸庵, 普賢寺(天柱寺併合), 五峰寺, 佛經寺(本寺併合), 深源寺, 鳳鳴庵, 天柱寺, 東觀音庵, 楸洞寺(本寺併合), 天燈寺(天柱寺併合, 영변군 연산면), 白雲庵(本寺併合), 天皇寺, 普賢庵, 極樂寺, 圓明寺, 金仙臺, 白蓮庵, 樂豐庵, 神興庵, 豐樂庵, 興福庵, 風德庵, 見性庵, 開元寺, 擲盤臺, 高寂臺, 三聖庵, 隱仙庵, 頭陀庵, 靑鶴臺, 羅漢殿, 普賢寺(회천군 신풍면), 成佛庵, 隱窟庵, 西臨寺, 隱峰庵, 龍興寺, 金麟寺, 萬年寺(구성군 성내면), 窟岩寺, 陰地寺, 午南寺, 鳳岩寺, 萬年寺(구성군 구성면), 白雲庵, 龍興寺, 子北寺, 棲雲寺, 金剛寺, 羅漢寺, 靈藏寺, 秋月庵, 國淸寺, 靈雲庵, 萬壽庵, 西上庵, 天柱寺.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보현사	(55매), 陰陽文판(2), 感應■판(3), ■子文판(2), 엽송설화판(258매), 선문귀감판(25매), 初心판(18매), 發心판(18매), 自警판(18매), 子夔文판(145매), 志般文판(33매), 豫修文판(17매), 中禮文판(17매), 諸般文판(53매), 범음집판(91매), 結手文판(11매), 施食文판(4매), 운수단판(42매), 청허집판(79매), 허백집판(28매), 월지집판(55매), 설암집판(119매), 허정집판(52매), 율곡집판(33매), 物外集판(10매)] ㉔ 사지류: 正宗御筆緣堂之錄(1), 緣起書(2), 普賢寺古今事蹟(1), 前後勅事蹟編錄(1), 事蹟記(1), 香山異蹟(1), 普賢塑畫造成錄(1), 太白山普濟禪門錄(1), 明將李如松書間(1), 西山遺帖(1), 寺田實進狀(2)[牒판(29매), 榜판(29매)] ㉕ 기타: [진언집판(38매), 隨求多羅尼판(18매)]
양화사	㉑ 경율논: 화엄경(3), 범화경(12), 원각경(7), 능엄경(16), 미타경(2), 금강경(2), 기신론(13) ㉒ 중국찬술: 대장일람(5), 대혜서장(1), 선원집도서(1) ㉓ 한국찬술: 별행록(2)
서운사	㉑ 경율논: 범화경(7)
오봉사	㉑ 경율논: 범화경(1), 지장경(1) ㉒ 사지류: 緣起書(1), 佛糧田畝(1), 遺物持掌記(4)
봉명암	㉑ 경율논: 천수성경(1), 미타경(1)
천황사	㉑ 경율논: 범화경(2) ㉓ 한국찬술: 승가예문(1)
청학대	㉑ 경율논: 범화경(7), 금강경(1)
보현사	㉑ 경율논: 범망경(1), 미타경(1), 무량수경(1), 십지관경(1), 금강경(1), 지장경(1), 준제경(1), 천수경(1) ㉒ 중국찬술: 禪要集(1) ㉓ 한국찬술: 절요(2)
서임사	㉑ 경율논: 범화경(1), 미타경(1), 은증경(1) ㉒ 중국찬술: 전등록(1) ㉓ 한국찬술: 일용집(1)
은봉암	㉑ 경율논: 원각경(3), 연화경(3) ㉓ 한국찬술: 선문염승집(1) ㉒ 사지류: 寺刹細則(1), 寺錄(1)
금린사	㉑ 경율논: 화엄경(3)
만년사 (성내면)	㉑ 경율논: 범화경(5), 무량수경(1), 범화경(10), 미타경(10)
굴암사	㉑ 경율논: 진언경(1)
음지사	㉑ 경율논: 금강경(1)
만년사 (구성면)	㉑ 경율논: 화엄경(10), 묘법연화경(20), 범망경(1), 불명경(1), 미타경(1), 지장경(3), 은증경(1), 辨正經(1)

북한의 불교 고문헌과 그 특성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만년사 (구성면)	㉠ 중국찬술: 대혜보각선사서(2), 선원제전집(2) ㉡ 한국찬술: 화엄품목(1), 선가귀감(4), 절요사기(4), 간화결의론(2), 운수단(3), 화엄예문(2), 천지명양수륙의찬요(1) ㉢ 기타: 미타참찬(4)
백운암	㉠ 경율논: 진언경(1)
용흥사	㉠ 경율논: 화엄경(1), 연화경(1), 금강경(1) ㉡ 중국찬술: 要集(1)
금강사	㉠ 경율논: 화엄경(10), 법화경(10), 원각경(2), 기신론(2) ㉡ 중국찬술: 要集(4)
나한사	㉠ 경율논: 원각경(1) ㉡ 사지류: 緣起書(1)
영장사	㉠ 경율논: 화엄경(7)
추월암	㉠ 경율논: 법화경(7)
국청사	㉠ 경율논: 기신론(3) ㉡ 중국찬술: 도서(1), 선요(1) ㉢ 한국찬술: 절요(1) ㉣ 사지류: 寺有田畝冊(1)

<표 9> 석왕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¹³⁾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석왕사	㉠ 경율논: 화엄경변상(1), 능엄경(10), 은중경(1)[藏本화엄경판(1부10매), 演義화엄경판(1부80매), 묘법연화경판(1부7매), 법화경판(180매), 금강경판(66매), 미타경판(13매), 大文금강경판(6매), 은중경판(12매), 금강경간장기판(102매), 기신론판(104매), 백법론판(9매), 심성론판(21매)] ㉡ 중국찬술: [장관(29매), 도서판(34매), 선요판(13매)] ㉢ 한국찬술: 범음집(1), [절요판(25매), 오종강요판(5매), 선가귀감판(12매), 초심자목판(9매), 結手文판(31매), 中禮文판(26매), 雲水集판(10매), 諸般集판(25매), 志般集판(24매), 豫修集판(12매), 喚醒集판(10매), 천경집판(44매), 煙巖集판(36매)]

13) 석왕사는 함경남도 안변군 설봉산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 釋王寺 壽君堂·尋劔堂·眞歇堂·內院庵·普門庵·香積庵·安養庵·白蓮庵, 三途庵, 成道庵, 普賢寺, 靈鷲寺, 武達寺, 再醒庵, 明寂寺, 寂照庵, 雲石寺, 葛月寺, 萬景庵, 道昌寺, 靑蓮寺, 見性庵, 梁泉庵, 白蓮庵, 覺圖庵, 雲水寺, 安佛寺, 雲住寺, 見性庵, 地興寺, 成佛寺, 親見寺, 曹溪寺, 東安寺, 觀喜寺, 龍興寺, 廣興寺, 普門寺, 普賢寺, 月明寺, 映月寺, 開院寺, 谷泉寺, 白泉寺, 極樂寺, 白雲寺, 水月庵, 上院庵, 新興寺, 觀音寺, 碧松庵, 靑龍寺, 靑雲寺, 白蓮寺, 雲住寺, 白雲寺, 雲住寺, 隱寂寺, 上院庵.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석왕사	<p>매), 白首文판(11매), ■<u>合文</u>판(10매)]</p> <p>㊸ 사지류: 列聖朝御筆(1), 李太王御筆(1), 正宗御筆(2), 哲宗御筆(1), 指空和尚教旨(1), 懶翁和尚教旨(1), 無學和尚教旨(1), 海印寺事蹟(1), 淸虛筆(1)[<u>석왕사사적</u>판(6매), ■<u>황제어제필</u>판(1매), <u>선조대왕어필</u>판(1매), <u>숙종대왕어필</u>판(1매), <u>영종대왕어필</u>판(1매)]</p> <p>㊹ 기타: 祈禱偶(1), 聖齋文(1)[<u>진언집</u>판(13매), 畫千手(4매)]</p>
진혈당	<p>㉠ 경율논: 疏화엄경(60), 법화경(7)</p>
내원암	<p>㉠ 경율논: 疏화엄경(1부40), 抄화엄경(1부80), 원각경(3부각4), 능엄경(2부), 반야경(2부), 범망경(1), 미타경(1), 십육관경(1), 은중경(1), 지장경(1), 법화경(1부7), 기신론(4부각4), 십지론(1부5), 간정기(3부각4)</p> <p>㉡ 중국찬술: 범보단경(1), 회현기(1부10)</p> <p>㉢ 한국찬술: 엄송(1부10), 설화(1부10), 범음집(1)</p> <p>㉣ 기타: 용감수경(1부7)</p>
보문암	<p>㉠ 경율논: 抄화엄경(80), 법화경(7), 대원각경(5), 수능엄경(2)</p>
향적암	<p>㉠ 경율논: 연화경(7), 아미타경(1), 행원품경(1)</p> <p>㊸ 사지류: 佛糧冊(1)</p> <p>㉣ 기타: 聖齋文(1)</p>
무달사	<p>㉠ 경율논: 연화경(7), 미타경(1)</p>
재성암	<p>㉠ 경율논: 법화경(7), 미타경(1), 부모은중경(1)</p>
운석사	<p>㉠ 경율논: 법화경(7)</p>
갈월사	<p>㉠ 경율논: 화엄경(14), 십육관경(1), 법화경(7), 부모은중경(1), 범망경(1)</p>
만경암	<p>㉠ 경율논: 연화경(7), 지장경(1)</p>
견성암	<p>㉠ 경율논: 법화경(3)</p>
운수사	<p>㉠ 경율논: 금강경(2), 법화경(4)</p> <p>㉢ 한국찬술: 범음집(1)</p>
안불사	<p>㉠ 경율논: 화엄경(42), 법화경(2), 원각경(1), 기신론(3), 도서(3)</p> <p>㉢ 한국찬술: 예수문(1), 결수문(1)</p>
운주사	<p>㉠ 경율논: 법화경(3), 금강경(2), 화엄경(1)</p>
지흥사	<p>㉠ 경율논: 법화경(3), 능엄경(6), 금강경(6), 기신론(3)</p> <p>㉡ 중국찬술: 전등록(10), 선요(1), 도서(1), 서장(1)</p>
성불사	<p>㉠ 경율논: 법화경(1), 금강경(8), 원각경(1), 미타경(1), 화엄경(1), 능엄경(1)</p> <p>㉡ 중국찬술: 法數(1), 선원집(1)</p> <p>㉢ 한국찬술: 심성론(1)</p> <p>㊸ 사지류: 佛■<u>魂記</u>(2)</p> <p>㉣ 기타: 다라니경(1)</p>
친견사	<p>㉠ 경율논: 법화경(1질), 금강경(1질)</p> <p>㉡ 중국찬술: 도서(1)</p>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동안사	㉠ 경율논: 법화경(2)
환회사	㉠ 경율논: 법화경(7)
용흥사	㉠ 경율논: 화엄경(80), 법화경(7), 원각경(4), 미타경(1)
보현사	㉠ 경율논: 연화경(4) ㉡ 한국찬술: 시식문(1사본), 제반문(2사본), 배비문(1사본), 결수문(1)
곡천사	㉠ 경율논: 법화경(1), 묘법연화경(1)
벽송암	㉠ 경율논: 법화경, 부모은중경, 지장경(1), 육조단경(1)
백련사	㉠ 경율논: 화엄경(2) ㉡ 한국찬술: 예불요집(1)
운주사	㉠ 경율논: 묘법연화경(8)

<표 10> 귀주사 및 말사 소장 불교문헌¹⁴⁾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귀주사	㉠ 경율논: 화엄경(16), 능엄경(10), 기신론(8), 금강경(4), 원각경(4), 법화경(28), 유마경(6), 십육관경(1), 미타경(1), 지장경(1), 불본행집경(12), 범망경(2), 사분율(4), 불유교경(1) ㉡ 중국찬술: 전등록(10), 도서(2), 서장(2), 선요(2), 정선치문(1), 육조단경(1), 회현기(10), 치문(3), 영가집(1), 현수법수(1), 입제록(1) ㉢ 한국찬술: 염송(10), 절요(2), 초심발심자경문(1), 조석송주예참심경(1), 여래행적(1), 결수문(2), 제가종파(1), 오종강(1) ㉣ 사지류: 成造所日記(1), 寺中成造下記册(3), 勸善■奉上成册(1), 住持先師案(1), 役所下記册(1), 寺事蹟(1), 成造所日記(1), 太祖親筆(1), 極樂庵事蹟(1), 東寺治華誌(1) ㉤ 기타: 수계의의(1), 독서당도(1), 함흥동궁법례(1)

14) 석왕사는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경흥리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등재된 말사는 다음과 같다. 釋王寺 壽君堂·尋劍堂·眞歇堂·內院庵·普門庵·香積庵·安養庵·白蓮庵, 三淦庵, 成道庵, 普賢寺, 靈鷲寺, 武達寺, 再醒庵, 明寂寺, 寂照庵, 雲石寺, 葛月寺, 萬景庵, 道昌寺, 靑蓮寺, 見性庵, 梁泉庵, 白蓮庵, 覺圓庵, 雲水寺, 安佛寺, 雲住寺, 見性庵, 地興寺, 成佛寺, 親見寺, 曹溪寺, 東安寺, 觀喜寺, 龍興寺, 廣興寺, 普門寺, 普賢寺, 月明寺, 映月寺, 開院寺, 谷泉寺, 白泉寺, 極樂寺, 白雲寺(무산군 연상면), 水月庵, 上院庵, 新興寺, 福興寺, 觀音寺, 碧松庵, 靑龍寺, 靑雲寺, 白蓮寺, 雲住寺(중성군 용계면), 白雲寺(영변군 서상면), 雲住寺(중성군 계상면), 隱寂寺, 上院庵.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개심사	㉠ 경율논: 화엄경(313), 대반열반경(9), 반야경(8), 지장경(2), 대승요의경(1), 기신론(16), 인명론(1), 대승백법론(1), 범망경(4), 십지론(6), 阿嚕力經(1), 무량수경(1), 천수경(1), 법화경(21), 원각경(24) ㉡ 중국찬술: 경율이상(8), 석가보(2), 간정기(14), 자비도량참(1), 역조화엄지협기(1), 선요(5), 치문(4), 전등록(15), 법수(2) ㉢ 한국찬술: 금강소기(6), 회현기(19), 능엄기(19), 대장경목록(2), 결수문(1), 별행록(4), 염송(9), 설화(4), 팔식규구행상(1) ㉣ 기타: ㊸승㊹(4), 진언집(1), 오백팔법(1), 화장세계기(1), 회현기(10), 제경안목(1)
대승암	㉠ 경율논: 법화경(7)
건불암	㉠ 경율논: 법화경(7)
보문암	㉠ 경율논: 법화경(7)
은적암	㉠ 경율논: 법화경(9) ㉡ 중국찬술: 요집(1) ㉢ 한국찬술: 범음집(1)
불지암	㉠ 경율논: 법화경(7)
홍복암	㉠ 경율논: 법화경(14) ㉡ 사지류: 귀주사본말사법(1)
홍덕암	㉠ 경율논: 범망경(1), 법화경(2), 화엄경(1) ㉡ 중국찬술: 大藏覽(1)
은적암	㉠ 경율논: 연화경(26), 능엄경(3), 원각경(1), 기신론(5) ㉡ 중국찬술: 전등록(7)
광제사	㉠ 경율논: 화엄경(59), 법화경(20), 인명론(1), 원각경(9) ㉡ 중국찬술: 서장(1), 도서(1), 선요(1), 치문(1), 연중보감(1) ㉢ 한국찬술: 절요(2), 예수문(1)
벽해암	㉠ 경율논: 법화경(1결)
북흥사	㉠ 경율논: 화엄경(1부), 반야경(2부), 기신론(2부), 법화경(2부), 원각경(2부), 능엄경(2부) ㉡ 중국찬술: 전등(1부), 四集(4) ㉢ 한국찬술: 염송(1부)
성도암	㉠ 경율논: 법화경(1)
도덕암	㉠ 경율논: 법화경(2), 화엄경(2)
보성암	㉠ 경율논: 법화경(1), 범망경(1), 화엄경(1) ㉡ 중국찬술: 법수집(1)
관해암	㉠ 경율논: 원각경(2), 법화경(5) ㉢ 한국찬술: 염송(9)
정광사	㉠ 경율논: 법화경(22), 원각경(7)
보현사	㉠ 경율논: 법화경(4)

사찰명	서명(건수) 및 목판명(매수)
도덕사	㉠ 경율논: 법화경(6)
추파사	㉠ 경율논: 금강경(2), 법화경(2)
가퇴사	㉠ 경율논: 법화경(17), 원각경(3), 연화경(1), 기신론(2)
동덕사	㉠ 경율논: 연화경(3), 원각경(2) ㉡ 중국찬술: 선요(2)
중흥사	㉠ 경율논: 법화경(1)
은선암	㉠ 경율논: 법화경(5)
개심사	㉠ 경율논: 법화경(7) [은중경관(47매)]
송덕사	㉠ 경율논: 묘법연화경(10), 능엄경(4), 원각경(3), 미타경(1) ㉡ 중국찬술: 선요(1) ㉢ 한국찬술: 선문설화(2)
청계사	㉠ 경율논: 법화경(2), 능엄경(1), 新記법화경(1) ㉡ 중국찬술: 대명법수(1) ㉢ 한국찬술: 제반문(2)
유계사	㉠ 경율논: 묘법연화경(2), 능엄경(2) ㉢ 한국찬술: 제반집(1)
벽송암	㉠ 경율논: 법화경(3), 부모은중경(1), 지장경(1) ㉡ 중국찬술: 육조단경(1)

3.2 김일성종합대학 소장 불서 목록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불서와 목판이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58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필사하여 발간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한서분류목록)』의 佛敎綱에 실려 있는 목록인데, 여기에는 불과 50종의 불서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는 근대에 발간된 책도 있으므로 조선시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간본은 40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김일성종합대학 소장 불서 목록

주 제	서 명
경전류	金剛波羅蜜經, 川老金剛經, 金剛經, 金剛心經, 柳城縣金綱經, 金剛般若波羅蜜經, 法華經妙音菩薩(卷7), 法蓮華經(卷7), 蓮華經(卷4-7), 妙法蓮華經, 楞嚴經, 華嚴經, 華嚴經, 大方廣佛華嚴經疏(卷75-76), 조선한글화엄경, 維摩經, 圓覺疏鈔, 梵網經, 地藏經, 楞伽經會譯, 校刊寫本楞伽師資記, 恩重經諺解,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佛說大報父母恩重經科判,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祖三經指南, 大悲陀羅尼經(千手經), 千手經, 畫千手經, 佛說安宅經, 佛說竈王經
중국찬술	六祖法寶壇經, 緇門, 入乘起信論疏記會本, 大慧普覺禪師書, 高峰和尚禪要, 證道歌註頌
한국찬술	禪教釋, 禪家龜鑑, 普照法語, 眞覺語錄, 禪學入門, 佛子必覽, 釋門義範, 朝鮮佛教通史, 朝鮮佛教略史
기타	金陵刻經處流通經典目錄, 覺世入錫, 祖庭事苑, 西域之佛教

4. 북한 불교 고문헌의 특성

앞에서 제시한 ‘북한 사찰 간행 불서 목록’을 정리해 보면, 1416년부터 1888년까지 총 90종의 불서가 213회 간행되었는데, 15세기 7회, 16세기 93회, 17세기 58회, 18세기 44회, 19세기 10회, 발행년 미상 2건이 관각되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경전 및 논서가 30종 88회 관각되었고, 중국찬술은 17종 52회, 한국찬술은 43종 74회 관각되었다. 아래는 주제별 관각 회수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주제별 관각 회수

대주제	소주제	불서
경율논 (30종 88회)	경전 (27종 81회)	관무량수경 1회, 관세음보살보문품 1회, 금강경 10회, 금강경간정기 1회,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1회, 대비심다라니 1회, 묘법연화경 20회, 반야심경 3회, 범망경 3회, 부모은중경 7회, 불설대목련경 3회,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1회, 사분율칠취대목초 1회, 사십이장경 1회, 수구다라니 1회, 수능엄경 4회, 아미타경 5회,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1회, 예수시왕생칠경 2회, 원각경소 1회, 육경합부 1회,

대주제	소주제	불서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3회, 조상경 1회, 지장보살본원경 4회, 천지팔양신주경 1회, 현행서방경 1회, 화엄경소 2회
	논서 (3종 6회)	대승기신론 4회, 대승백법명문론 1회, 십지경론 1회
중국찬술 (17종 52회)	선서 (11종 41회)	경전전등록 3회, 고봉화상선요 6회, 대혜보각산사서 7회, 몽산법어 9회, 벽암록 1회, 선림보훈 1회, 선원제전집도서 7회, 선종영가집 4회, 육조법보단경 1회, 전심법요 1회, 증도가 1회
	교훈 (2종 6회)	치문경훈 5회, 연종보감 1회
	기타 (4종 5회)	대장일람집 1회, 용감수감 1회, 천태사교의약초 1회, 현수제승법수 2회
한국찬술 (43종 74회)	선서 (7종 20회)	간화결의론 1회, 법집별행록결요 7회, 선문염송집 3회, 선가귀감 5회, 선문오중강요 2회, 구자무불성간병론 1회, 조동오위 1회
	문집 (16종 22회)	벽송당야로행록 1회, 삼문직지 1회, 설암집 1회, 역산집 1회, 연경별찬 1회, 엄불보권문 2회, 원돈성불론 2회, 월저당대사집 2회, 월파집 1회, 진허집 1회, 천경집 2회, 청허당집 1회, 허백집 2회, 허정집 1회, 현정론 1회, 환성시집 1회
	의례 (11종 19회)	산보범음집 1회, 운수단가사 2회, 제반문 2회, 제진언집 2회,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2회, 다비문 1회,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3회, 예념미타도량참법 1회,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3회, 오대진언 1회, 청문 1회
	사적기 (1종 2회)	석왕사기 2회
	기타 (8종 12회)	발심수행장 1회, 불조종파지도 1회, 계초심학인문 3회, 관세음보살영험약초 2회, 법화영험전 1회, 사명근원록 1회, 서방무이로 2회, 옥추경 1회
합계		90종 213회

위의 목록에 있는 불서들은 조선시대에 북한 지역 사찰에서 간행되었지만 대부분 국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문헌들이다. 그리고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불서들도 위의 목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목판이나 사지류는 국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이 두 자료는 거의 유일본이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목판의 경우, 앞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 북한지역 각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은 총 11,721매 이상이였다.¹⁵⁾ 그러나 현재 그 목판들의 소장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도 없고 연구된 자료도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보현사 목록에서 ‘대장경판 4,023매’라고 한 것은 아마도 해인사 대장경 판본을 인출한 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령 정양사 목록에서 ‘대장경 6,447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906년에 해인사 장경각에서 대장경 1,400권을 인출하여 금강산 정양사에 봉안했다는 기록¹⁶⁾이 있으므로 1906년 이후 수집된 고려대장경 판본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보현사에 대장경판이 있었다는 기록은 아마도 고려대장경의 판본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1937년에 만주국 황제의 요청으로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한 2부 가운데 1부는 묘향산 보현사에 봉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사지류의 경우, 북한 소재 불교문헌으로서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지류는 해당 사찰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이고 또 대부분이 필사본이므로 다른 곳으로 반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지류를 다시 구분해보면 국가 발급 문서와 사적 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3> 북한 소재 사찰 사지류 목록

사찰명		사지류(건수)
①	유점사	㉠ 국가 발급 문서: 成宗御筆(2), 完文(6), 帖文(1), 立案(5) ㉡ 사적 자료: 事蹟(1)
	신계사	㉠ 국가 발급 문서: 完文(12), 節目(1)
	장안사	㉠ 국가 발급 문서: 完文(21), 節目(5), 立案(1) ㉡ 사적 자료: 紅字上樑文(1), 長安寺事蹟(1) ㉢ 기타: 量案(7), 田畵案(3)
	표훈사	㉠ 국가 발급 문서: 世祖御筆(1) ㉢ 기타: 量案(2), 各樣文書(1)
	성주암	㉡ 사적기: 葛來事蹟(1)

15) 일제강점시 소장 목판을 앞의 표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석대암 1종 35매, 패엽사 1종 1매, 신광사 경판 160매, 귀진사 대장경 1,500매, 영명사 대장경 416매, 길상사 1종 1매, 범홍사 1종 300매, 보현사 67종 8,247매, 37종 1,014매, 개심사 1종 47매.

16)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編 (서울: 新文館, 1918), 617.

17) 智冠, 『伽椰山 海印寺誌』 (서울: 伽山文庫, 1992), 314-315.

사찰명		사지류(건수)
⑤	법흥사	㉠ 국가 발급 문서: 宣祖御筆(2) ㉡ 사적기: 事蹟冊(1), 寺刹史料(2)
⑥	보현사	㉠ 국가 발급 문서: 正宗御筆緣堂之錄(1) ㉡ 사적 자료: 緣起書(2), 普賢寺古今事蹟(1), 前後勅事蹟編錄(1), 事蹟記(1), 香山異蹟(1), 普賢塑畫造成錄(1), 太白山普濟禪門錄(1), 明將李如松書間(1), 西山遺帖(1) ㉢ 기타: 寺田實進狀(2),
	오봉사	㉡ 사적 자료: 緣起書(1) ㉢ 기타: 佛糧田畝(1), 遺物持掌記(4)
	은봉암	㉡ 사적 자료: 寺錄(1) ㉢ 기타: 寺刹細則(1)
	나환사	㉡ 사적 자료: 緣起書(1)
	국청사	㉢ 기타: 寺有田畝冊(1)
⑦	석왕사	㉠ 국가 발급 문서: 列聖朝御筆(1), 正宗御筆(2), 哲宗御筆(1), 李太王御筆(1), 指空和尚教旨(1), 懶翁和尚教旨(1), 無學和尚教旨(1) ㉡ 사적 자료: 海印寺事蹟(1) ㉢ 기타: 淸虛筆(1)
	향적암	㉢ 기타: 佛糧冊(1)
	성불사	㉢ 기타: 佛魂記(2)
⑧	귀주사	㉠ 국가 발급 문서: 太祖親筆(1) ㉡ 사적 자료: 成造所日記(1), 寺中成造下記冊(3), 勸善奉土成冊(1), 住持先師案(1), 役所下記冊(1), 寺事蹟(1), 成造所日記(1), 極樂庵事蹟(1), 東寺治華誌(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유점사는 성종어필, 표훈사는 세조어필, 법흥사는 선조어필, 보현사는 정조어필, 석왕사는 태조·숙종·영조정조·철종어필, 귀주사는 태조어필 등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계사와 장안사는 완문과 절목을 발급받았다. 이 사찰들은 모두 조선시대 왕실 원당이었다.¹⁸⁾ 석왕사는

18) 아래의 원당 관련 내용은 탁효정의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탁효정의 박사논문에는 법흥사가 왕실 원당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왕사의 철종 어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데, 본고에서 소개한 『조선사찰재산목록』에는 법흥사에 선조어필, 석왕사에 철종어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조와 철종이 각각 법흥사와 석왕사에 어필을 하사했던 것 같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부터 기도했던 곳으로 조선말기까지 왕실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사찰이다. 기록에 의하면, 숙종은 1708년에 석왕사에 있는 태조 어필을 비석에 새기게 하고 직접 그 발문을 썼다고 하였고,¹⁹⁾ 영조는 1758년에 석왕사에 봉안되어 있는 태조를 추모하는 『御製釋王寺碑文追記』를 직접 썼다고 하였으며,²⁰⁾ 정조는 1790년에 자신이 직접 지은 비문을 석왕사에 내려 비석을 세우도록 하교하였다.²¹⁾ 귀주사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독서했던 곳이다. 『歸州寺重建紀蹟碑銘并序』에 의하면, 귀주사에 태조의 어필을 모신 어필각과 태조가 독서했던 독서당이 있었기 때문에 숙종과 정조가 친필을 하사하여 귀주사를 매우 존중하였으며 조선 말기까지 왕실 원당으로 인식되었다.²²⁾ 유점사는, 『金剛山楡岾寺續事蹟記』에 의하면, 세조가 잠시 머물며 중수를 명하였는데 성종이 그 내용을 직접 써서 하사하였으며, 영조대에는 화재가 나자 명례궁과 어의궁에서 사찰을 중수하도록 명하였고, 이후에도 왕실에서 사찰의 중수를 지원하였다.²³⁾ 표훈사 역시 세조가 직접 방문하여 중수를 명하였던 곳이었다.²⁴⁾ 보현사는 서산휴정의 충의를 기리는 ‘酬忠祠’가 정조에 의해 하사되었던 곳이다.²⁵⁾ 정조는 보현사에 ‘酬忠祠’를 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를 직접 찬술하여 하사하기도 하였다.²⁶⁾ 또한 명성왕후는 왕세자(순종)를 낳은 후 그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1875년에 보현사 상원암 바로 옆에 축성전을 지었다고 한다.²⁷⁾ 장안사는 세조가 직접 방문하여 7일간 기도하여 부처님으로부터 授記를 받아 원당으로 삼았던 곳이다.²⁸⁾ 그리고 신계사는 1789년(정

19)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編 (서울: 新文館, 1918), 534.

20) 『英祖實錄』 91卷, 34年(1758 戊寅) 4月 17日(壬申) 1번째 기사.

21) 『正祖實錄』 31卷, 14年(1790 庚戌) 8月 21日(己巳) 1번째 기사.

22) 朝鮮總督府, 『(增補校正)朝鮮寺刹史料』 下 (서울: 경성인쇄소, 1911), 360.

23)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楡岾寺本末寺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49-53.

2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453.

25) 『正祖實錄』 39卷, 18年(1794 甲寅) 3月 16日(癸卯) 2번째 기사.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서산휴정의 충의를 기리는 ‘表忠祠’가 해남 대흥사에 공인되자 보현사 승려들이 서산휴정이 입적한 보현사에도 사당도 공인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조가 ‘酬忠祠’를 하사하였다.

26) 朝鮮總督府(1911), 225-227.

27) 탁효정(2011), 217.

조 13)에 왕실에서 사도세자의 원당으로 삼아 원불전과 용선전 등을 건축하는데 비용을 대었던 곳이다.²⁹⁾ 이러한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에 각 사찰에서 어필이나 완문 등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자료와 기타 자료 역시 각 사찰의 역사와 관련되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이 현재까지 북한에 전래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妙香山普賢寺其他ニ關スル調査』,³⁰⁾ 『朝鮮寺刹史料』, 『楡岾寺本末寺誌』 등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대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흥사나 귀주사 등의 사적 자료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한편, 앞에서 소개한 1958년에 필사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목록의 불서는 그 양이 지나치게 소략하다. 각 사찰에 있던 불서를 당시까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집성하지 않았던 것 같다. 또 묘향산 보현사의 경우 비교적 한국전쟁의 피해를 덜 입었기 때문에 목판과 전적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7년에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인출한 6,793본 전적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들이 보현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³¹⁾ 그러므로 북한 소재 사찰 불교문헌들이 어딘가에 소장되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학자들 중에 북한의 사회과학원과 철학연구소,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등과 같은 인문학 연구기관의 귀중도서실에 불교 전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귀중도서실에는 중국학자들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목록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불교문헌의 규모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2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329.

2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235.

30) 『妙香山普賢寺其他ニ關スル調査』는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허홍식, “普賢寺古今事蹟과 妙香異蹟의 史料價值,” 『정신문화연구』 제24권 제2호(성남: 정신문화연구원, 2001), 129-142 참조.

31) 정창현, “보현사 활용한 종합박물관 곳곳이 국보, 처치가 보물유적,” 『민족21』 135(서울: 민족21, 2012), 140-142.

5. 맺음말

북한이 불교문헌을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제강점기의 사찰재산목록을 중심으로 불교문헌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사찰재산목록이 작성된 이후 한국전쟁이 있었고 또 화재 등의 여러 이유로 불교문헌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의 목록 그대로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을 통해 그러한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제강점기의 사찰재산목록을 가지고 그 문헌들을 찾아야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 목록들을 소개하고 특징적인 문헌에 대해 언급하였다.

불교문헌 가운데 목판과 사지류는 인출된 책과 달리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 자료들은 판각되거나 필사된 당시의 불교계를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찾아내어 연구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치적 여건에 따라 북한 소장 불교문헌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여건이 되었을 때 곧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료정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근대 불교계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아직 DB 구축과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자료 가운데는 북한 소재 사찰 재산 목록도 있으므로 정리와 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 사찰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불교문헌을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하였다. 남북한의 우호적인 학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불교문헌을 조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고에서 정리한 목록들이 기초가 되어 언젠가 있게 될 남북한 공동 조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원전]

『英祖實錄』.

『正祖實錄』.

朝鮮總督府. 『(增補校正)朝鮮寺刹史料』. 경성: 경성인쇄소, 1911.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경성: 新文館, 1918.

『朝鮮寺刹貴重財産目錄』 총 26책(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楡岾寺本末寺誌』.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단행본 및 논문]

김상현. “영통사 발굴 및 복원의 역사적 의의.” 『천대학연구』 9(서울: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6).

김성수 외 4명.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편.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백서』.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9.

박상국.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법타스님. 『북한불교연구』. 서울: 민족사, 2000.

사찰문화연구원 편. 『北韓寺刹研究』. 서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993.

禹秦雄. “조선시대 묘향산 보현사 간행 판본고.” 『서지학연구』 51(대구: 서지학회, 2012).

정창현. “보현사 활용한 종합박물관 곳곳이 국보, 처처가 보물유적.” 『민족21』(서울: (주)민족21, 2012. 6). 135.

智冠. 『伽倻山 海印寺誌』. 서울: 伽山文庫, 1992.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허홍식. “普賢寺古今事蹟과 妙香異蹟의 史料價値.” 『정신문화연구』 제24권 제2호(성남: 정신문화연구원, 2001).

황인규. “북한지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의.” 『대각사상』 17(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2).

